

우리는 위대한 노트담 역사의 일부이다:

## 90 년의 인도네시아 SND 사명



2024년 11월 21일, 자카르타의 노트담 푸리 인다 공동체에 있는 성녀 줄리 홀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 SND 선교 90주년 기념 행사는 장엄했으며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육, 건강, 사회 및 사목적 돌봄 분야에서 수녀들의 사도직을 통해 발전하고 열매를 맺은 90년 전 선교 수녀들의 여정과 헌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 미사는 이냐시우스 수하르요 추기경이 주례했고, SND가 사도직을 하는 지방의 여러 주교가 동반했습니다. 알로이시우스 마리아디 수트리스나앗마카 주교, MSF, 크리스토포루스 트리하르소노 주교, 필리핀 일로일로 주교인 조세 로메오 주아니토 오르게조 라초 주교, 11명의 사제들과 총행정부의 메리 앤 수녀, 마리 소-화 수녀, 마리나 수녀, 다양한 공동체의 수녀들, 기부자들, 다양한 단위의 초대 손님, SND 파트너들, 그리고 수녀들의 삶과 일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기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마태오 복음 12,48-50에 근거한 강론에서 추기경은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을 향해 성장해야 하는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 후,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고, 노트담 푸리 인다 유치원 교사, 유기서원자들, 마르가닝시 라셈 고아원의 원아들, 성 미카엘 와락 고등학교 학생들, 노트담 자카르타 고등학교 학생들, 노트담 그랜드 위사타, 베카시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사랑에 찬 한 가족으로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교회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초창기 선교사들이 시작한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돌보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한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SND 선교 100 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망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걸어갑니다.